

##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

### □ 노무현 대통령(모두 발언)

한일 양국의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번 제주도에 이어서 1년에 한차례 정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 보자는 합의에 따라서 오늘 다시 이곳 이부스키에서 만났습니다. 회담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부스키까지 오는 동안에 일본의 이 지역이 참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오는 동안에 아주 아름답게 생긴 만을 양쪽 다 보고 거기도 아름답다 느꼈지만 특히 이곳 이부스키는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백수관도 아주 특별히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이런 지방도시에 이만한 설비를 갖추고 오늘 이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놀랍게 생각하고 참 부럽다는 느낌도 함께 받았습니다.

합의 자체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합의하지 않은 일에 있어서도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또 신뢰가 더욱 더 돈독하게 됐다는 점 이런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고이즈미 총리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점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 또 상당부분 서로 합의를 나누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로 상호 이해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고, 또 합의 이루지 않은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도 격의 없이 솔직한 대화를 나눈 것이 큰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합의 자체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합의하지 않은 일에 있어서도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또 신뢰가 더욱 더 돈독하게 됐다는 점 이런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중요성에 관해서 다시 재확인하고 교섭을 촉진하는 방안에 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내년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불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일관계도 지난 40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흔들림 없는 이웃이 돼야 할 것입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내년 한일 우정의 해를 그런 계기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데 합의를 이루고 우리 두 나라를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항구적인 비자면제와 김포-하네다 간 항공편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고이즈미 총리와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중요성에 관해서 다시 재확인하고 교섭을 촉진하는 방안에 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양국이 합의한 원칙에 따라 농수산물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나는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6자회담의 틀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6자회담의 조기개최와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조속한 회담 참가와 핵 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설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나는 남북관계와 일북관계의 장래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설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고이즈미 총리께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하여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대화의 계속해야 하며 제재조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북 간의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3국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동북아시아,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지역 협력발전은 한일 양국의 번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은 한중일 3국간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난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담의 3국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나는 이라크의 조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이라크 국민 스스로가 선택한 합법적 주권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합의가 원만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와 고이즈미 총리는 매우 솔직하고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가능성을 실감했습니다. 지난 7

월 제주도에 이어서 오늘 이부스키에서 만남을 통해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정착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 편리한 시기에 한국의 지방도시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 □ 질의·응답

### ▲ 한중호 문화일보 기자

지금 일본에서는 북한이 요코다 메구미의 허위 유골을 보낸 의혹 때문에 북한에 경제제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본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노무현 대통령

그것은 아주 냉정하고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북일 수교문제나 또는 6자회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 문제에 관한 기본인식은 가급적이면 일본의 경제제재로 인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지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반드시 또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의 입장에서 납치문제와 유골문제를 놓고 경제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냉정하고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북일 수교문제나 또는 6

자회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를 놓고 일본 국민들이 받은 충격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유족들이 받은 충격은 더 클 것입니다. 정말 유족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이 주어진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로 제재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경솔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 의도가 잘 짐작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고의로 이와 같은 일을 해서 이득을 볼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결과적으로 받은 충격은 크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것을 고의로 일본 국민을 모욕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성급하게 경제제재라는 이런 대응책을 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는 북한이 성의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좀 더 확인해 보고 북한에게 그런 기회도 주고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착오나 실수였을 경우와 고의적인 모욕행위였을 경우를 달리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신중하게 이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한다는 문제는 동북아시아에서 장차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또한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반드시 추구해야 될 일

본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혹시 너무 성급한 판단이 북일 수교를 해치거나 또는 6자회담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그것은 일본 국익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정의 상처를 입고 또 분개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의 입장이고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라면 이 문제가 종점에 이르렀을 때 말하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결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지도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냉정한 그런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또 국민과는 다른 그런 선택으로서 존중돼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지도자의 판단과 일반국민의 판단이 항상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달라야 하느냐.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대처하는 이런 경우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적인 문제가 걸린 어려운 문제일수록 지도자에게 판단을 맡기고 조금 시간을 두고 지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여유를 주시는 그런 여유를 일본국민들이 가졌으면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제재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충분한 사실규명과 신중한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북일수교라든지 또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 목표에 비추어서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시미즈 타카유키 도쿄신문 기자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TV드라마가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등 한류 붐이라고 해서 일본과 한국의 우호무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편에서 양국에는 역사문제라는 무거운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내년에는 일한 교류의 해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 진정한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 노무현 대통령

역사문제이든 또는 그밖의 문제이든 간에 이와 같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돼야 합니다,

분위기 좋은 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또 역사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올바른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한일 간의 올바른 미래,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역사를 돌이켜 보고 역사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의 미래는 의심할 바 없이 평화와 공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협력해야 하고 큰 틀에 있어서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역사문제이든 또는 그밖의 문제이든 간에 이와 같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돼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입장에서 또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일면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또 일면에 있어서는 미래 지향의 차원에서 일본이 역사문제를 흔쾌히 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또 일본의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점에 관해서 또한 매우 전향적인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런 저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국이 자꾸 일본에게 역사문제를 끄집어내서 또다시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이 과연 한일간의 우호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점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 역사문제를 일본 국내에서 일본 국민들의 어떤 도덕적 결단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갈 때 문제가 제기됐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일본 국민의 정서와 감정과 한국이 제기했을 때 일본국민의 반응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이 문제를 풀기 원한다면 이제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역사문제를 일본에 계속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본 자국 내에서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있고 그 문제와 국민들과 더불어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국이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 때도 역사문제와 관련한 그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본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오히려 나쁘게 반응할 만한 이런 일들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하나... 역사 문제에 관해서 공동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양국이 합의한 것이고 또 객관적 진실을 발견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양국의 감정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극복해 나가자는 그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역사연구는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앞으로 동북아시아가 역시 새로운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 그리고 협력,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민들이 말하자면 동북아시아의 지도적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요구되고 있는 보편적 기준, 유럽을 포함한 그런 선례라든지 이런 보편적 수준에 있어서의 지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것은 다른 국가의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 국민들이 무슨 결단을 할 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국민들 간에는, 일부 국민들 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역행하는 발언을 계속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강대국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강대국이고 앞으로 세계질서 속에서도 강대국입니다. 좀 더 자국 중심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라는 큰 질서를 놓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지도적인 국가로서 또 국민으로서 어떤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또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관용과 양보의 태도를 스스로 가져가는 것이 나는 동북아 질서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약한 사람이나 약한 나라의 관용은 자칫하면 비굴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량이 있는 강대국의 관용은 그야말로 겸손으로 보일 수 있으며 미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일본 국민들이 21세기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또 새로운 동북아 질서 속에서 자기 위상을 찾아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 한 것이지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자꾸만 구체적인 문제가 아닌 감성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거둬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두가 절제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